

♥여조작비(如鳥數飛)♥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게된다고 하니
"아는 만큼 보인 다"는 말이 맞다.

우리는 알기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논어 학이편에 '여조작비(如鳥數飛)라는 말이 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수없이 자주 날갯짓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배우기를 끊임없이 연습하
고 익혀야 한다

맹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어머니의 교육열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
한지 오래지 않아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으로 돌아온다.

어떻게든 아들을 공부시켜 큰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묻는다.
"공부는 마쳤느냐?"

맹자가 대답한다.
"아닙니다 어머니가보고 싶어 왔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칼을들어 찌고 있던 벼들의 베의 날실을 자른다.

맹자가 놀라 묻는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한다.
"네가 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고생하며찌던 베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맹자는 그 길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여 큰 학자가 되어 공자 다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된다.

맹자는 항상 생존을걱정해야 했던 시대를 살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았다

어려움이란 새로움의 시작일 뿐이다.

어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세상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
게 변해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이나,
소극적이냐의 문제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한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빌 게이츠도 같은 말을
한다 "나는 힘이 썬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
다"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가 되는 것처럼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 는
것이다.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모르는 체 하는 사람과 순간순간 변화에 깨어 있으면서
당당
히 맞서는 사람과의 차이는 각도계의 눈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살아온 날이 중요한가,
살아갈 날이 중요한가?

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저 머무르게 될 뿐이다.

<버나드 쇼>의 저 유명한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이렇게 될 줄 알았지"

힘차게 흐르던 물이 구덩이를 만나면 멈추게 된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다.

상처만 남을 뿐이다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흐를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다.
사람의 그릇은 이처럼 구덩이에 빠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이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할퀴고 절망에 빠져 자포 자기하는데 어떤 이는 물이
구덩이를 채워 넘쳐흐를 때까지 마음을 다잡아 재기를 노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기 전보다 잘나가는 사람이 있다.

세한도를 그린 조선시대
붓글씨의 추사 김정희를 봐라.

3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병조참판까지 잘나가다 모함에빠져 제주도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된다

그는 삶의 구덩이에빠진
걸 한탄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 일이었다

먹을 가는 벼루만 해도
10개가 밑창이 나고 붓은 천 자루가 달아서 뭉개졌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길고긴 귀양살이를 전남 강진에서 보내게 된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역경과 시련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극복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한다.

목민심서 경세유표등 대작과 수많은 저서를 남겨 후대에삶의 지표를 남긴다

그에게 구덩이는 구덩이가 아니었다.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